

새 책

▶아이들이 된 국가(류하이롱 편저, 귀샤오안 등 지음, 김태연·이현정·홍주연 옮김)=2016년 '디바 출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 사이버 민족주의의 새로운 경향을 심도 있게 서술한다. 저자들은 팬덤 민족주의로 지칭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민족주의를 소셜미디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신세대 정보통신기술로 이루어진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파악한다. 갈무리, 2만원.



▶오늘부터 나도 글잘러(안영주 지음)=더보이즈, 레드벨벳, 강다니엘 등 유명 가수의 가사를 쓴 작사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가 쉽고 흥미로운 글쓰기 방법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알맞게 전달한다. '일상 속 글감 찾기'부터 'SNS에서 인싸 되는 법'과 '자기소개서 쓰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글쓰기 팁을 제공한다. 북트러거, 1만4000원.



▶쓸쓸했다가 귀여웠다(글·그림 김성라)=태어나고 자란 제주를 배경으로 지은 그림책 '굴 사람', '고사리 가방' 등으로 자신이 머물러 있는 풍경을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성라 작가의 그림예시. 작가는 이번 그림예시를 통해 육지와 섬을 오고 가는 생활에서 발견하게 된 깨달음을 그림과 예시로 촘촘하게 기록했다. 아침달, 1만7000원.



▶역광의 여인, 비비안 마이어(가엘 조스 지음, 최정수 옮김)=다양한 삶의 모습을 자신만의 프레임 안에 담은 예술가, 고독했으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비비안 마이어. 프랑스 산골 마을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과 그 유산으로 평생의 고단한 삶을 견뎌냈을 그녀의 삶을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저자가 퍼즐 조각을 맞추듯 세심하게 그려냈다. 뮤진트리, 1만4000원.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보니(고영미 시집)=삶의 현장, 새로운 생명이 세상을 만나는 곳에서 무수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인도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실토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초심'을 생각하는 시인은(관계), 황혼 속에서 부모의 죽음을 인지하고, '죽는 법과 다시 사는 법'을 배운다(황혼). 작품미디어, 1만4000원.



▶미오, 우리 미오(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장편동화, 요한 에예르크란스 그림, 김경희 번역)=전 세계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장편동화. 린드그렌이 어린이가 느끼는 외로움을 허물려는 열망으로 집필한 이 책은 황폐한 현실에도 작고 연약한 어린이가 씩씩하게 자신만의 용기를 발견해 낼 수 있게 길을 밝혀 주는 판타지다. 창비, 1만8000원.



흥미로운 뇌의 비밀 '스파이크'의 여행

마크 험프리스의 '스파이크'

눈에서 손까지의 여행 과정 생생하고 흥미롭게 풀어내

우리 뇌 속 수십억 개의 뉴런은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 받으며 소통한다. 뇌과학자들은 이 전기 신호를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우리가 말하고 먹고 달리고 보고 계획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모든 행위는 스파이크가 뉴런을 타고 질주하며 온갖 효과를 일으킨 결과라고 한다.

책 '스파이크'(마크 험프리스 지음, 해나무 펴냄)는 영국 노팅엄대 계산신경과학과 석좌교수인 저자가 신경계의 본질적 요소인 '스파이크'의 여행을 따라 가며 그 작용을 낱알이 살펴본 책이다.

'뇌를 누비는 2.1초 동안의 파란만장한 여행'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책은 스파이크 하나가 눈에서 출발해 뇌를 거쳐 손까

지 여행하는 2.1초간의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예를 들어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한 부분이 이뤄지는 동안, 즉 쿠키를 보고 주변 상황을 판단한 뒤에 그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2.1초 동안 뇌 속에서 스파이크가 어떻게 상세히 살펴본다.

책 속 저자의 설명을 덧붙여 옮기면 "스파이크의 여행은 쿠키에서 반사한 빛을 수용하는 눈에서 시작되어, 빛과 그들의 패턴을 쿠키의 경계, 곡선, 질감, 색깔로 변환하는 시각 담당 겹질을 거치고, 지각과 결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겹질 영역들을 거쳐, 운동 시스템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척수를 통해 근육들이 눈에 보이는 물체를 향해 손을 움직인다. 보기에서 결정하기와 움직이기에 이르는 여행, 눈에서 손에 이르는 여행



이다." 출판사는 "스파이크들의 머나먼 여행. 이 모든 복잡다단한 과정이 한 권의 책에 질서정연하고 충실하게 담겼다"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스파이크의 관점에서 뇌의 내부 작동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상세하게 알게 된다"고 소개한다. 책은 1장 '우리는 스파이크다' 등 크게 10장과 결말 '스파이크의 미래'로 구성됐다. 6장에서는 암흑뉴런 문제, 9장에선 '자발적 스파이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대호 옮김, 1만9800원.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사랑스런 반려견 '나무'와의 추억

권남희의 '어느 날 마음속에 나무를 심었다'

'어느 날 마음속에 나무를 심었다'(이봄 펴냄)는 번역가이자 에세이스트인 권남희 작가의 반려견 에세이다. 한 가족이 반려동물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삶을 보여준다.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작가가 외롭게 지내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입양한 시츄종 강아지의 이름은 '나무'다. 저자는 '나무'와 함께한 14년의 시간들을 때론 유쾌하게, 때론 먹먹하게 그려낸다.

출판사는 "이 책은 블로그에서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나무'의 이야기들과 '나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뒤 남은 가족들의 담담하고 가슴 찡한 일상들까지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무 이야기를 펼치며 작가는

"14년 동안 꾸준히 기록한 나무 이야기와 나무를 보낸 이후 우리 모녀의 이야기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혹은 보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또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나무는 멀리 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옮겨온 거다. 외출할 때 혼자 두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마음속에서 내 눈물을 먹으면 안 되니 울면 안돼, 등등. 덕분에 묵숨처럼 사랑한 반려동물과 헤어졌지만, 펫로스 증후군이 없었다"는 조언도 건넨다.

마지막을 기억하며 슬픔만큼이나 기쁨 또한 잊지 말자고 전하는 작가는 '나무'가 주었던 행복들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토



대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나무가 떠난 뒤에도 나무 덕분에 웃는다"고 말한다. 책은 '우리 집에 나무가 왔다' '나무 덕분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다' '좀 천천히 들어가자, 나무야' '나무가 어딘가 이상해졌다' '어느 날 마음속에 나무를 심었다' 등 크게 5장으로 구성됐다. 반려견 '나무'의 입장에서 쓴 글과 '나무'의 또 다른 가족이자 언니인 정하의 마지막 편지도 실렸다. 1만5000원. 오은지기자

다시 돌아온 정군철의 '수목한계선'

시옷서점·한그루, 북간 '리본시선' 세 번째

제주 정군철 시인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의 첫 시집이 복간됐다. 제주의 시집 전문서점 시옷서점과 한그루 출판사가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시집 북간 프로젝트 '리본시선'의 세 번째 시집 '수목한계선'이다.



고 정군철 시인은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그려내며 제1회 서귀포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옷서점은 북간 머리말에서 "서늘한 정신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그린 이 시집이 고산식물처럼 외롭게 폼다 지는 것이 안타까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전했다.

이번 시집은 2003년 발간 당시 수록 작품이 그대로 실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시집엔 '서늘한 정신' '베릿 내의 숨비꽃' '따로 있는 물의 길' 등 60편의 시가 담겼다. 해설과 추천사도 초반의 것을 따랐다.

출판사는 "오랜 시간이 흘러 시집도 시인도 더는 만날 수 없지만, 그의 시만큼은 영원한 눈빛으로 남아 이제 새 옷을 입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다"며 "그가 보았던 제주의 풍경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해, 우리의 허상을 날카롭게 찌른다"고 소개했다. 한그루, 1만원. 오은지기자

이지민 두 번째 시집 '간헐 은유'

이지민의 두 번째 시집 '간헐 은유'가 제주출판사 시인선으로 최근 출간됐다.



부산 출생인 시인은 현재 함덕문학회 회원, 제주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5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2019년 첫 시집 '낙타와 낙엽'을 펴냈다.

시집엔 총 6부로 나뉘어 '뜨거운 마지막' '2월 끝자락' '어쩌다' '바다는' '코로나로 앓아간 건' '시어를 찾아' 등 60편의 시가 수록됐다.

한문용 시인은 평설에서 "시인 이지민은 요리하는 시인이다.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다. 세상 이치에 순응하면서 수용의 미학을 탐험한다. 그가 탐색하고, 구현하려는 인생관은 서정적이다. 낭만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작품들을 체계화했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시집이 "동글동글한 시어의 마술로 빛은 사랑의 감동이 물결친다", "자연, 사랑, 시적 은유를 상상력의 뿌리로 한 그리움의 시학을 가꾸는 놀랍고 정겨운 함축된 시어"라고 평했다. 제주출판, 1만2000원. 오은지기자

수 축 상

대통령표창

양 영 순

(주)서부

제1회 여성기업주관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 서 부

수 축 상

대통령표창

양 영 순

(주)서부자원 대표이사

제1회 여성기업주관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경순 가족 일동

수 축 상

대통령표창

양 영 순

(주)서부자원 대표이사

제1회 여성기업주관 기념
여성기업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고정신 외 회원 일동